

초임기 가정과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 분석 - 1급 정교사 가정 자격연수 대상자 중심으로 -

이현정*¹⁾

치악고등학교*

Needs analysis for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for newly appointed Home Economics teachers - Focusing on the participants of first-grade teachers qualification training -

Lee, Hyunjung*¹⁾

Chiak High School*

Abstract

Teachers are not completed by appointment, but gradually made through self-development and training for a long time. In order to improve a sense of responsibility of home economics teachers, and also to suggest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program through job training, the needs of training subjects should be preferentially understood. Thu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developmental operation measures of training for home economics teachers, by researching the needs for training performed after the qualification training for first-grade teachers, targeting the teachers participating in the qualification training program for first-grade teachers of home economics in 2017. About the half of the research subjects received the home economics training one time or less for last three years. Through the training for first-grade teachers, the technical improvement of lesson instruction was demanded the most. A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hat should be cultivated through training, the ability to develop teaching methods a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was the highest. Regarding the theme of training, the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materials for home economics was desired the most. They wanted the training method including direct participation with high utilization for lesson, sublation of competition-centered evaluation, preference of instructors with field experience, continuous opportunity of home economics training, and communicative training. Regarding the needs fo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demand for the training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was the highes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through home economics training,

1) 교신저자: Lee, Hyunjung, 1, Chiakgogyo-gil, Wonju-si, Gangwon-do, Korea
Tel: 033-737-6000, Fax: 033-737-6039, E-mail: beautiful-0304@hanmail.net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temporal room for training and administrative support, and also to provide diverse types of training like group training, remote training, and smartphone app training suitable for changes in the generation of teachers. Also, on top of forming communities of home economics teachers, and sharing great contents of training, there should be individually-customized training for practice and sharing lesson cases.

Key words: 교육 요구도(educational needs), 가정과 직무연수 프로그램(Home Economics in-service training program), 교사 전문성(teacher professionalism)

I. 서론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특성이 변화하듯이 교사들의 특성도 변화한다. 요즘 초임기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7차 교육과정은 열린 교육, 열린 학습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을 강조하며 수업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정들과 크게 다른 교육방법의 특징을 갖는다. 초임기 교사들은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노출이 많았던 세대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받고 책으로 공부하던 기존 세대의 교사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초임기 교사들의 연수 방식과 내용은 기존에 해오던 직무연수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교사는 임용이 되었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자기 계발과 연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진다(Kim, 1996). 교사들은 학부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쌓고, 임용이 된 후 학교현장의 경험을 통해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학부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으므로, 임용 후 학교생활을 경험한 후 그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학부에서 배웠던 교육과정 이후의 새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연수가 요구된다.

교직에 들어온 직후부터 교사로서 맡아야 할 모든 책임을 한꺼번에 맡게 되는 초임기 교사들은 교육과정 수행에서 교과지

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교사무분장, 학부모관계에 이르기까지 학교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Kim & Joo, 2015). 초임기(교사 입직, 성장기) 교사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교과중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장 최신의 교육학 이론을 갖추고 있고 정보통신 활용 능력도 기술적으로 매우 우수하다(Kim & Joo, 2015). 교사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용 초기에 효과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ee, 2017).

일반적으로 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이 되며, 임용 3년 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수를 이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을 하고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교사들도 있지만, 연수에 무관심하고 연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들도 많다. 가르치는 일이 주된 업무인 교사가 더욱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이나 교수법 등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워야 하며, 그렇기에 연수의 중요성이 1)교육기본법(제14조 ②항)과 2)교육공무원법(제38조 ①항)의 교육관련 법조문에도 나타나 있다.

Lee et al.(2010)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연수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발달단계 또는 직급에 따라 필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원연수는 교사의 교직 발달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더 높은 발달단계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는 연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1)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론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받아들이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그 결과에 반성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념이나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Lim, Kweon, Lee, Park, & Ryu, 2007).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연수들은 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며 연수의 효과도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수기관의 주도에 의해 타율적·하향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Lee, Choi, & Song, 2010). 교사들을 위한 연수의 내용과 방법이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해서 계획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연수는 교사의 교직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원연수는 교사의 교직 발달단계에 따라 연수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원연수에서 어떠한 연수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게 하므로,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교원연수가 연수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정교사들이 직무연수에서 어떠한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수학(Lee & Jang, 2012), 보건(Choi & Jin, 2014), 체육(Yang, Park, & Park, 2013), 기술(Lee, Seo, & Seong, 2016) 등 다른 교과에서는 연수 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정 교과에서는 연수 요구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가정과 교사는 한 학교에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조연을 구할 동교과 교사가 없어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며 교내에서 동교과 장학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직무연수는 동교과 교사가 만나기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직무연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하며, 직무연수 요구를 파악하기에 앞서 초임기 가정과 교사들이 직무연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2017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참여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이수하는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1정 연수를 받는 시기가 임용 후 3년 이후로서, 현장에 임용되어 학부 때 배운 이론과 현장에 임용되어 실제 교육과의 차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초임기 교사를 대표하

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많은 기간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정과 교육을 이끌어 갈 교사들이므로 그들의 연수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임기 가정교사(가정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초임기 가정과 교사의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기 가정교사의 최근 3년간 가정교과 관련 직무연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초임기 가정교사의 가정과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 내용 체계의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II. 관련 문헌 고찰

1. 교사연수의 유형과 목적

교원연수는 교육정책 현장 착근, 직무역량 제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의 효율성 및 연수기관 질 관리 제고를 목표로 ‘변화하는 학교, 행복한 학교 실현’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부(2017)는 이를 위해 교육정책,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학생평가, 안전교육,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등의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전문성 성장을 위한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격·직무연수를 내실화하고, 강사 선정 및 강의자료 발굴,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에도 노력하며 교원연수의 효율성 및 연수기관의 질 관리 체제를 도입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안전 관련 연수, 역사 관련 연수를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필수 연수 주제로 지정하고 있지만 필수 연수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필수 연수가 지정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들도 많다. 학교는 <Table 1>과 같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안전교육 직무연수와정을 개설하고 교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연수 내용

Table 1. Main contents of seven major standards of safety education

| 7 Areas | Detailed Contents |
|-----------|---|
| 생활안전 | 시설 안전, 실내·외 활동·신체활동·여가활동안전, 식생활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
| 교통안전 |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안전 |
| 폭력·신변안전 | 언어·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아동학대, 사이버 폭력 |
| 약물·사이버 안전 | 흡연·음주, 의약품,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정보보호 |
| 재난안전 |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
| 직업안전 | 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등 |
| 응급처치 |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

은 근무하는 학교급과 교과에 따라 차별화 되는데, 예를들어 가정교사는 안전의 기본원리, 국가재난 안전관리체계 이해, 학교 안전매뉴얼 이해, 안전 수영, 교통안전, 화재안전, 폭력 및 신변 안전, 약물·유해물질 안전, 직업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연수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역사 관련 연수도 필수여서 역사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교원연수, 워크숍 등을 통해 역사소양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직무연수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후 직무연수는 교사가 임용 후 교직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연수의 성격 상 현장 적용도와 연수 참여자들의 교육 요구 반영비율이 높아야 한다<Figure 1 참조>.

교육부(2016)는 교직의 경력을 교사 입직→성장기→발전기→심화기의 단계로 나누어 교직 경력별(생애별)에 따른 연수와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대부분 교사입직 단계와 성장기에 있다. 이 시기는 학교의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고 공직의 자세와 교직실무 기초를 익혀야 한다. 또한, 학급경영 및 전문적 교육능력 역량을 쌓아야 한다. 이에 교육부(2016)는 초임교사를 위해 교육청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초임기 교사의 연수 강화를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개설과 이수가 필수가 아니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의 직무연수는 더욱 자발성이 요구된다.

Park(2006)은 교원연수의 목적을 건전한 신념 고취, 교육기술 함양, 지식 함양, 지도력 함양으로 제시하였다. 교원연수는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교사 자신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직무연수를 통해 계속적으로 성장을 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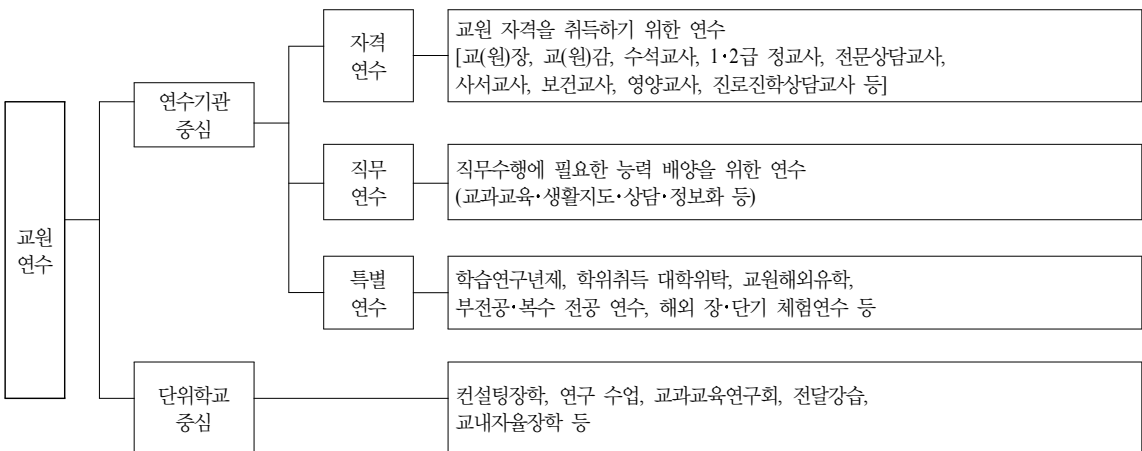


Figure 1. An outline of teacher training(Ministry of Education, 2016)

야 하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수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정과의 교사가 제공받는 연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이 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2급 정교사로 부임한 후 일반적으로 3년 후에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이다. 1급 자격연수는 대학원 과정과 대체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1급 자격연수 역시 필수연수는 아니다. 가정과 교사의 1급 자격연수는 과거에는 각 시도 교육청의 연수원에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가정과 담당 연구관이나 심의관이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가정과 분야의 초임교사 임용수가 많지 않았던 몇 년간 1급 정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여러 지역을 통합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급 자격연수를 통해 초임기 교사는 가정과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기르고, 가정교과의 현황과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배우며 현장 교사들의 실제 수업사례를 공유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만 지식전달위주의 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되기도 한다(Park, 2006).

직무연수는 교수학습방법, 교양, 상담, 학급운영 등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2017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학교 SW 교육, 자유학기제, 학생평가, 학생생활기록부, 안전교육, 다문화 교육, 역사교육 등 대부분이 정부 정책상 요구되는 연수 주제들이다(교육부, 2016). 이 연수 주제들은 직간접적으로 가정교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와 연결하여 초임기 가정교사들의 연수 주제 요구도를 파악하여 가정과 교사들이 교육받기 원하는 연수를 개설해야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Lee, Choi와 Song(2014)은 교사발달을 입문부터 퇴임에 이르는 시간적 변화와 함께 교직의 전 영역에 걸친 변화로 정의하면서, 교직 발달단계에 따라 연수에 대한 요구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직 발달단계에 따라서 연수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에 대한 요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교직 발달단계에 따라 연수 요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함을 시사 하였다. Kim(1999)의 연구에서는 교직 초임기에는 수업 기술 향상에 대한 연수요구가 높았고 정채 및 심화기에는 교직에 대한 전반

적 지식의 요구가 높아서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Joo(2015)는 신규교사 추수 직무연수의 개선 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는데, 신규교사들은 추수 직무연수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임용직 후부터 1년 사이에 30시간의 집합+원격연수 형태의 직무연수 방식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Lee(2017)의 중등 신규임용교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수교육과정이 시기별 요구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교과목의 구성, 연수 방식, 수업 방식, 강사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수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Lee, Choi와 Song(2014), Lee(2017), Kim과 Joo(2015)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강의 중심 연수수업 방식보다는 실습, 토의·토론, 사례 발표 방식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위주의 연수를 원하고 있었다.

가정과 연수관련 연구로는 초창기에는 강원도 지역 중심으로 가정교과 직무연수 운영의 실태 및 인식 조사(Choi & Yoon, 2001), 중등 가정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및 연수 참여자의 인식(Lim et al., 2007)의 연구와 같이 직무연수 운영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로 이루어졌다. Choi와 Yoon(2001)의 연구에서는 연수시기는 방학 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양, 교직 내용은 최소화하고 교과 전공 내용의 양을 높이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강의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 et al.(2007)은 가정과 교육 연수 전문가가 연수과정을 편성하고, 연수인원은 26-30명 정도가 적합하며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 후에는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Lee & Yoo, 2008),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 관점의 변화에 따른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 개발(Yoo & Lee, 2009), 한문화 인식 증진을 위한 가정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Bae, Park, & Lee, 2010), 의식주생활의 문화적 측면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Bae, 2012)과 같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 졌다.

최근 5년 동안에는 가정과 교사 연수관련 조사는 매우 미미하며, 특히 초임기 교사에게는 그 시기에 맞는 연수가 제공되어

야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임 기 가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14.3%(12명)로 가정교과의 특성상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많았다(Table 2 참조). 연령별로 보면, 20대 32.1%(27명), 30대 57.1%(48명), 40대 이상 10.7%(9명)로 30대 교사가 가장 많았다. 출신학교는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졸업한 교사가 79.8%(67명)로 가장 많았다.

III. 연구방법

2. 조사도구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7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참여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1차 작성한 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 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2017년 1급 정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각 학교의 교육연수원에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연수 대상자들의 연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수가 종료된 후 우편으로 회수되도록 하여 8월말까지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추후에 이루어지는 직무연수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121명중 84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이 설문지는 선행연구(Kang, 2010; Lim et al., 2007)를 참고로 하여 1차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집단(교수 1인, 박사 1인, 현장교사 2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은 거쳐 재구성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 구성은 배경변인 관련 문항은 교직경력, 학교급, 출신학과, 연령을 포함하였고, 가정교과 직무연수 실태는 최근 3년 동안 이수한 가정교과 직무연수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17년에 가정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교사로 그들의 일반적 특성은 교직 경력은 5년 미만 77.1%(64명), 5년~10년 미만 14.5%(12명), 10년 이상 8.4%(7명)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이므로 5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근무하는 학교급은 중학교 85.7%(72명),

가정과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사항은 직무연수의 필요성과 연수를 통해 함양할 전문적 자질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10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10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 대상자들이 직무연수의 필요성 항목으로 높이 여기고 연수를 통해 함양할 전문적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수 주제, 연수받고 싶은 교수학습 방법은 ‘매우 연수를 받고 싶다’ 10점에서 ‘전혀 연수를 받고 싶지 않다’ 1점의 10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연수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 신뢰도는 Cronbach’s α 검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신뢰도계수는 직무연수의 필요성 0.88, 연수를 통해 함양할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Category | | n | % | Category | | n | % |
|---------------------|--|----|------|------------------|---------------|----|------|
| Career | -5 | 64 | 77.1 | A Working School | Middle School | 72 | 85.7 |
| | 5-10 | 12 | 14.5 | | High School | 12 | 14.3 |
| | 10- | 7 | 8.4 | | | | |
| Academic Background | Normal University | 67 | 79.8 | Age | 20s | 27 | 32.1 |
| | Complete a Course in Teacher Education | 10 | 11.9 | | 30s | 48 | 57.1 |
| | Graduate School | 7 | 8.3 | | Over Forty | 9 | 10.7 |

전문적 자질 0.82, 연수 주제 0.60, 연수받고 싶은 교수학습 방법 0.73이었다. 추후 직무연수에 바라는 점 개방형 질문도 함께 질문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가정과 교육 내용 영역은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립으로 나누어서 ‘매우 연수를 받고 싶다’ 10점에서 ‘전혀 연수를 받고 싶지 않다’ 1점의 10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연수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계수는 인간 발달과 가족 0.90, 가정생활과 안전 0.94, 자원 관리와 자립 0.61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Win ver 20.0 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의 가정과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정교과 직무연수 실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참가자인 가정교사들은 최근 3년 동안 10회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31명으로 나타났으나, 절반 이상의 교사들은 최근 6회 이하의 직무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정교과 직무연수 이수의 경험은 17명이 가정과 직무연수를 받은 적이 없었고, 23명은 가정과 직무연수를 1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사들이 가정교과 직

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정교과 직무연수를 받고 싶지만, 바쁜 학교 일정 때문에’가 20.2%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교과 직무연수를 받고 싶지만 충분하게 개설 되지 않아서’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 직무연수가 있는지 몰라서’도 3.6%를 차지했으며, ‘근무 외 시간은 휴식이 필요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2.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추후 가정과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추후의 가정과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도는 직무연수 필요성, 연수를 통해 함양할 자질, 연수 주제, 연수 받고 싶은 교수학습 방법의 일반적 요구도와 그 외에 가정교과 직무연수에 바라는 점의 개방형 질문으로 알아보았다.

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추후 가정과 직무연수에 대한 일반적 요구도

가정과 직무연수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Table 4>와 같이 직무연수의 필요성, 연수를 통해 함양할 전문적 자질, 연수 주제, 연수받고 싶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 가정교과 직무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수업지도의 기술 향상이 8.52로 가장 높았으며, 교직자로서 사명감과 전문성 향상 8.34, 교과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 8.19, 가정교과의 평가 능력 향상 8.13으로 나타

Table 3. Number of completed Home Economics training courses completed in the last three years

| Number of completed | N | % |
|---------------------|----|------|
| 0 | 17 | 20.2 |
| 1 | 23 | 27.4 |
| 2 | 16 | 19.0 |
| 3 | 15 | 17.9 |
| 4 | 3 | 3.6 |
| 5 | 6 | 7.1 |
| More than six times | 4 | 4.8 |
| Total | 84 | 100 |

났다. 이는 교직 초임기에는 수업기술 향상에 대한 연수 요구가 높고,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선호한다는 Kim(199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직무연수를 통해 함양할 전문적 자질로는 교수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능력(9.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교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8.42), 가정교과와 관련된 실습 능력(8.18), 영역별 교육내용 통합 능력(8.12) 순으로 나타났다. Kang(2010)의 중등 가정과 자격연수 교육과정 요구도 조사에서는 교수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역별 교육내용을 통합하는 능력, 가정교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볼 때, 초임기 교사는 연수를 통해 교수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능력을 가장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연수의 주제는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8.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교과의 자유학기제 적용(8.35), 가정 수업 시간의 교수·학습 방법(8.33), 가정교과평가 방법(8.17), 진로지도(8.00), 가정교과 전공 내용(7.50), 가정교과와 학생생활기록부(7.26), 가정과 교육과정(7.25)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로는 실습 중심의 학습법(8.26)이 가장 높았고, 협동학습(8.04), 실천적 추론 수업(7.71), 매체 활용 수업(7.62)의 순서로 연수를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정교과 직무연수에 바라는 점 개방형 질문 결과

1정 자격연수 대상자들의 1정 자격연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정과 직무연수에 대해 바라는 점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현장에 도움이 되고 활용도가 높은 연수, 강의식

Table 4. Home Economics training course requirements

| Category | | M | SD |
|----------------------|----------------------------|------|------|
| 직무 연수 필요성 | 수업지도의 기술 향상을 위해 | 8.52 | 1.67 |
| | 교직자로서 사명감을 증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 8.34 | 1.88 |
| | 교과에 관한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해 | 8.19 | 1.80 |
| | 가정교과의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 8.13 | 1.90 |
| | Total | 8.30 | 1.56 |
| 연수를 통해 함양할 전문적 자질 | 교수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능력 | 9.00 | 1.17 |
| | 가정교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 8.42 | 1.48 |
| | 가정교과와 관련된 실습 능력 | 8.18 | 1.74 |
| | 영역별 교육내용을 통합(재구성)하는 능력 | 8.12 | 1.74 |
| | Total | 8.43 | 1.25 |
| 연수 주제 |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 8.98 | 1.24 |
| | 가정교과 자유학기제 | 8.35 | 1.68 |
| | 가정교과 교수·학습 방법 | 8.33 | 1.75 |
| | 가정교과 평가 방법 | 8.17 | 1.83 |
| | 가정교과와 진로지도 | 8.00 | 1.67 |
| | 가정교과 전공 내용(의, 식, 주 등) | 7.50 | 2.41 |
| | 가정교과와 학생생활기록부 | 7.26 | 2.42 |
| | 가정과 교육과정 | 7.25 | 2.03 |
| | Total | 8.02 | 1.33 |
| 연수받고 싶은 교수학습방법 | 실습 중심 학습법(조리실습, 생활관 실습 등) | 8.26 | 1.80 |
| | 협동학습(협동학습, 토론학습, 쟁점 수업 등) | 8.04 | 1.84 |
| | 실천적 추론/문제해결법/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 | 7.71 | 2.09 |
| | 매체 활용 수업(NIE, 미디어 활용 등) | 7.62 | 2.24 |
| | Total | 7.91 | 1.48 |

연수 수업방법이 아닌 다양한 연수 수업방법 지향, 전문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연수평가, 현장감 있는 강사 선정, 연수기간이 짧더라도 지속적인 연수 개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얻는 소통의 시간, 기타(사회 변화 반영, 원격연수, 소규모 인원)의 7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연수의 만족도가 연수 방식, 수업 방식, 강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Lee(2017)의 결과가 초임기 가정과 교사의 요구에 나타난 것이다.

1) 현장에 도움이 되고 활용도가 높은 연수

연구 대상자들은 가정과 직무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연수가 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연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가정과 수업의 실제 사례를 배우며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연수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연수가 좋다.
- 현장에서 적용, 실천할 수 있는 연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를 원한다.
-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연수 프로그램을 바란다.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 수업사례를 배우고 싶다.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내용 위주로 하면 좋겠다.
-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수가 필요하다.
- 수업에 활용 가능한 활동중심 연수를 바란다.

2) 강의식 연수 수업방법이 아닌 다양한 연수 수업방법 지향

1정 자격연수 대상자들은 가정과 직무연수에 대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연수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으며, 강의식 교수 방법을 지양한다는 Yea과 Kang(2004), Kim과 Joo(2015), Lee(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 강의식 연수보다는 실습이 더 필요하다.
- 실제로 학교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실습하였으면 좋겠다.
- 이론보다 실습의 비중이 높았으면 좋겠다.
- 강의식 위주의 연수는 변화되어야 한다.
- 기존의 연수에 비해 실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 다양한 실습을 하는 연수를 원한다.
- 이론식 연수는 지양한다.
- 강의식이 아닌 연수였으면 좋겠다.

3) 전문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연수평가

직무연수의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가 경쟁을 조장하여 연수를 통한 발전보다는 연수의 분위기를 저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또한, 평가를 위한 연수가 아닌 전문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수내용과 평가내용과 방법이 일체화 되었으면 좋겠다.
- 평가를 하게 되면 연수 분위기가 살벌해 질 것 같다.
-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직무연수를 바란다.
- 평가를 위한 연수가 아닌 진정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되기를 바란다.
-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며, 출세우기 식의 연수는 싫다.
- 평가를 한다면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평가내용과 방법의 질이 높았으면 좋겠다.

4) 현장감 있는 강사 선정

직무연수를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은 학교현장과 교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 현장감 있는 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동료교사 또는 수석교사가 추후 직무연수 강사를 담당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Kim과 Joo(2015)의 결과와 동일하다.

- 강사진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 교사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 현직 교사를 강사로 선정하여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 현장에서 학생중심 가정수업을 하는 교사의 경험을 배우는 연수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 현장감 있는 강사선정을 원한다.
- 현장 중심의 강사와 내용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다.

5) 연수기간이 짧더라도 지속적인 연수 개설

직무연수의 개설 주기에 대해 교사들은 지속적이고, 연수 기간은 짧더라도 자주 수시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었다.

- 연수 기간을 짧게 하여 자주 연수를 받고 싶다.
- 5년마다 심도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 가정교과의 튼튼한 입지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많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바란다.
- 일회성 연수가 아닌 지속적 직무연수의 개설을 원한다.
- 짧더라도 다양한 연수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6)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얻는 소통의 시간

연구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달받는 직무연수보다는 직무연수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얻는 시간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 토론, 협동, 의견 나누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 교사 간의 소통이 많은 연수가 필요하다.
- 개개인의 교직생활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Tip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 소통의 장이 많았으면 좋겠다.

7) 기타(사회 변화 반영, 원격연수, 소규모 인원)

기타 의견으로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수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집합연수가 아니더라도 원격연수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연수를 받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는 연수가 되기를 바란다.
- 참여가 어려운 교사를 위해 원격연수가 많아지면 좋겠다.
- 연수 인원을 소규모로 하였으면 좋겠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요구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가정과 전공 영역에 대한 요구도는 <Table 5>와 같이 인간 발달과 가족 7.99, 가정생활과 안전 7.85, 자원 관리와 자립 7.72의 순서로 연수를 받고 싶은 요구를 나타내었다.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은 8개 내용으로 부모됨의 준비(8.65),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8.30), 사랑과 결혼(8.22),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8.17), 가족 관계(8.15), 임신 중 생활과 출산(7.95),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7.88),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6.91) 순서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은 13개의 내용으로 가족의 치유와 회복(8.67)이 가장 연수받고 싶은 내용으로 나타났고,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8.62)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기 생활 문제와 예방(8.14), 가족의 생애주기별 안전(8.04), 한옥과 친환경적인 주생활(8.00),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7.85),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7.84),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7.73), 주생활 문화와 주거공간 활용(7.59), 주거 환경과 안전(7.57), 청소년기의 영양과 식행동(7.52), 옷차림과 의복 마련(7.47), 식사의 계획과 선택(7.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은 10개의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와 일·가정 양립이 8.15로 가장 높았고,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8.07)을 그 다음으로 요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립적인 노후 생활(8.02),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7.82), 경제적 자립의 준비(7.79), 가족생활설계(7.66), 가정생활복지 서비스의 활용(7.61), 청소년의 자기 관리(7.53), 의복 관리와 재활용(7.47), 청소년기의 소비생활(7.37) 순서로 요구하였다.

Table 5. Demands for major contents

| Category | | M | SD |
|------------|------------------|------|------|
| 인간 발달과 가족 | 부모됨의 준비 | 8.65 | 1.70 |
| |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 8.30 | 1.74 |
| | 사랑과 결혼 | 8.22 | 1.91 |
| |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 8.17 | 1.65 |
| | 가족 관계 | 8.15 | 1.67 |
| | 임신 중 생활과 출산 | 7.95 | 2.14 |
| |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 | 7.88 | 2.00 |
| |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 6.91 | 2.21 |
| Total | | 7.99 | 1.44 |
| 가정 생활과 안전 | 가족의 치유와 회복 | 8.67 | 1.45 |
| |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 | 8.62 | 1.61 |
| | 청소년기 생활 문제와 예방 | 8.14 | 1.64 |
| | 가족의 생애주기별 안전 | 8.04 | 1.85 |
| | 한옥과 친환경적인 주생활 | 8.00 | 1.81 |
| |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 | 7.85 | 2.06 |
| |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 | 7.84 | 2.08 |
| |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 | 7.73 | 2.01 |
| |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 | 7.59 | 2.01 |
| | 주거 환경과 안전 | 7.57 | 1.92 |
| | 청소년기의 영양과 식행동 | 7.52 | 2.03 |
| | 옷차림과 의복 마련 | 7.47 | 2.10 |
| 식사의 계획과 선택 | 7.35 | 2.04 | |
| Total | | 7.85 | 1.47 |
| 자원 관리와 자립 | 지출산·고령사회와 일·가정양립 | 8.15 | 1.83 |
| |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 8.07 | 1.88 |
| | 자립적인 노후 생활 | 8.02 | 2.08 |
| |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 | 7.82 | 2.04 |
| | 경제적 자립의 준비 | 7.79 | 2.18 |
| | 가족생활설계 | 7.66 | 2.14 |
| |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의 활용 | 7.61 | 2.16 |
| | 청소년의 자기 관리 | 7.53 | 2.09 |
| | 의복 관리와 재활용 | 7.47 | 2.16 |
| |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 7.37 | 2.15 |
| Total | | 7.72 | 1.65 |

V. 결론 및 제언

직무연수를 통해 가정교사의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수대상자인 교사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가정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 참여교사들을 대상으로 1

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에 이루어질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과 교사의 직무연수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0명의 초임기 교사는 학교 일정이 바쁘거나 가정교과 연수를 받고 싶지만 충분하게 개설되지 않아서 최근 3년 동안 가정과 직무연수를 1회 이하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이루어지는 추후 직무연수를 통해 수업 지도의 기술 향상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으며, 직무연수를 통해 함양할 전문적 자질로도 교수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능력을 가장 높게 꼽았다. 직무연수의 주제 역시 가정과 교수학습의 자료 개발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과 직무연수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제공받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으며, 강의식 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 방법, 줄 세우기 식의 평가 지양, 현장감 있는 강사 선호, 지속적인 가정과 직무연수의 기회, 전달연수 보다는 소통하는 연수를 바라고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연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됨의 준비’ 주제의 연수를 가장 요구하였다.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는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 ‘가족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내용의 연수 요구가 가장 높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기 가정교사들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후에도 끊임 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싶어 하여 가정과 직무연수를 받고 싶지만 학교의 바쁜 일정에 쫓겨서 시간 마련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시간을 마련한다 해도 직무연수 자체가 충분하게 개설되지 않아서 직무연수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개인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를 받고 싶어 하지만 우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크므로,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교육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본질적인 취지보다 서열 세우기의 평가 방법으로 인해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연수의 평가 내용과 방법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새로 도입된 주제는 기존의 주제에 비해 연수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가정교사의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대상이 되는 가정교사는 경력 3년 이상 된 교사로 교직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된 초임기의 교사들이다. 그들은 자라면서 그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크게 구분되

는 7차 교육과정과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세대이다. 그러므로, 연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기 보다는 그 세대의 특징에 맞는 연수 방법을 개발하여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존 세대에 비해 미디어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이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연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가정과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 질 높은 내용의 연수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은 모두 전문가들이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동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연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사들은 많은 발표시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도 생각하였으므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좋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과 교사들의 지역별, 경력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그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업무와 학교의 상황으로 인해 연수를 받고 싶지만 마음 편하게 연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적인 면에서 학교는 가정과 교사가 가정교과 교육에 더욱 전념하고, 가정과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초임기 가정 교사들의 연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넷째, 가정과 교사의 직무연수를 소속 교육청의 교사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가정 교사들도 이수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 좋은 내용의 직무연수는 모든 가정과 교사가 공유하여야 가정교과가 발전할 수 있다. 가정교과의 직무연수를 각 지역의 가정교과 연구회 또는 가정과 모임 등에서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기획하여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로 공유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사들이 다양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이론적, 지식 전달 위주의 연수보다는 실습, 수업 사례 나눔 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초임기의 가정교사들은 학부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풍부하게 쌓았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제에 대한 직무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직무연수가 되어야 한다. 연수는 평가를 통해 교사를 서열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하는 것이므로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고 배움의 즐거움을 주는 직무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초임기 교사들은 학교현장을 잘 알고 이해하는 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경력이 적은 교사들은 실제 수업과 학교 현장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가정교과 수석 교사들을 통해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연수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현장 가정교사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가정과 교수와 교사가 함께 팀을 결성하는 등 가정교육의 전문가들이 함께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임기 가정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홉째, 연수 대상자마다 제각각 다른 성향과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직의 초임기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 단계에 맞게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17년 중등가정 1정 자격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용 후 5년 정도까지를 초임기 교사로 볼 때 모든 초임기 가정교사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후속연구에서는 가정교사들을 초임기, 성장기, 발전기, 심화기로 생애별 교직 경력을 나누어서 가정교사의 교직발달단계에 따른 직무연수 요구를 분석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Bae, H. Y. (2012).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Home Economics teacher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cultural & Artistic aspects of clothing, food, and housing life and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11), 1208-1221.
- Bae, H. Y., Park, M. J., & Lee, H. J. (201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elevating the recognition of Han culture - based on clothing life culture in three kingdoms period.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1), 33-50.
- Choi, M. J., & Jin, S. W. (2014). Needs assessment of in-service education on teaching for school health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1), 6509-6517.
- Choi, M. S., & Yoon, I. K. (2001). A survey on the actual administrating condition and teacher's recognition on the in-service training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 - Centering around Kangwon province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3(2), 85-99.
- Kang, S. H. (2010). *A study of Home Economics qualification training program operation and participants satisfaction and nee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Kim, H. G. (1996). 한국교원연수체제의 회고와 전망. *교육이론과 실천* 6(1), 7-15.
- Kim, H. K., & Joo, Y. H. (2015). An analysis on improving in-service training program of novice teachers in Korea.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8(2), 151-178.
- Kim, J. L. (1999).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needs of school-based in-service education by career cyc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Lee, C. H., Seo, W. S., & Seong, G. W. (2016). Case studies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service training program for technology educators.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16(3), 66-88.
- Lee, H. C., & Jang, M. S. (2012). On the analysis and policy alternatives of an in-service teacher training on mathemat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15(1), 171-182.
- Lee, H. S. (2017). Curriculum development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secondary beginning teachers' core-competenc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0), 289-312.

- Lee, S. E., Choi, J. Y., & Song, K. O. (2010). An analysis on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need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t different stages of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Yeolln Education, 18*(1), 127-154.
- Lee, S. H., & Yoo, T. M. (2008). Focus group interview for the development of an in-service educational program on the practical problem focu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107-129.
- Lim, I. Y., Kweon, L. R., Lee, H. S., Park, M. J., & Ryu, S. H. (2007). An analysis on the curricula and recognitions of the Home Economics teachers who were the participants of the first-grade Home Economics regular teacher qualific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4), 37-56.
- Ministry of Education (2016). *2017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 Park, M. H. (2006). 가정교과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의 방향. *Proceedings of the 2006 Summ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Korea, 29-55.*
- Yang, J. M., Park, J. J., & Park, K. S. (2013). Teacher's reflection on improvement of physical education in-service training program through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9*(3), 31-44.
- Yeau, S. H., & Kang, S. J. (2004). Research on second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about in-service education system and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1*(1), 323-345.
- Yoo, T. M., & Lee, S. H. (2009).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n in-service program of practical problem focused curriculum with changing curriculum development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1), 1-19.

<국문요약>

교사는 임용이 되었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자기 계발과 연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직무연수를 통해 가정교사의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수 대상자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가정과 1정 정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 참여교사들을 대상으로 1정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에 이루어질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과 교사의 직무연수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최근 3년 동안 가정과 직무연수를 1회 이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추후 직무연수를 통해 수업 지도의 기술 향상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으며, 직무연수를 통해 함양할 전문적 자질로는 교수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능력이 가장 높았다. 직무연수의 주제는 가정과 교수학습의 자료 개발을 가장 원하였고, 수업에 활용도가 높으며,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연수 수업 방법, 줄 세우기 식의 평가 지양, 현장감 있는 강사 선호, 지속적인 가정과 직무연수의 기회, 소통하는 연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요구는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연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행정적인 지원 등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교사의 세대 변화에 맞춰 집합연수, 원격연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좋은 내용의 직무연수를 공유하며, 실습, 수업 사례 나눔, 교사 개개인의 맞춤형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11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3월 8일